

업무내용과 대학(원) 전공의 불일치

김기현*

I. 들어가며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들은 이행결과로서 주로 실업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최근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고용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자와 관련, 본인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과잉교육(over-education) 문제는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소개(김기현, 2003; 박천수, 2004; 김주섭, 2005)되고 있는데 비해서 전공분야를 살리지 못하고 취업하는 전공 불일치 문제는 잘 소개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¹⁾

다만, 최근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도에 관한 통계치가 제시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대표적인데, 이 조사는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포함하는 고등교육기관 363개 졸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로서 2003년 8월과 2004년 2월 졸업자들의 전공일치도를 공개하고 있다(강성국 외, 2004). 이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들의 전공일치도는 69.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졸업한 대졸자들 중 30.4%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외국에서 진행된 한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공불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시모토 등(吉本 他, 2001)은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kihuns@youthnet.re.kr).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10개국을 대상으로 전공불일치 정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과 현재 하는 일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의 경우 41.0%로 네덜란드(12.1%), 이탈리아(12.2%), 오스트리아(21.3%), 프랑스(21.5%) 등 유럽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와 앞선 국내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에 있어 측정방식이나 조사시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 정도가 높은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또 다른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3년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앞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보다 높은 57.3%의 응답자들이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우리나라의 전공불일치 정도가 높을 것이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의 7차년도(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졸업자들 중 조사 당시 취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내용과 전공간의 불일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전공불일치 측정에 관한 논의와 KLIPS 자료에서의 측정방법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KLIPS 자료 결과에 따른 대학(원)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KLIPS의 전공불일치의 측정

업무내용과 전공간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측정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통상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진다(Wolbers, 2003). 이것은 포괄적인 연구주제로서 직무불일치(job mismatch)의 그것과 거의 같다. 직무불일치의 측정문제는 Borghans and

-
- 1)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1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첫 직장의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정도를 묻고 있다. 앞선 조사와는 달리 이 조사는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공불일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교육 졸업자만을 살펴보다도 전문대졸자 49.2%, 4년제 대학 졸업자 40.5%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보다는 그 수치가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조사방법 및 측정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통계조사는 전수조사로서 학교의 취업, 전산 및 학과 담당자들이 해당 졸업생의 취업정보를 입수해 응답자를 대신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비해 경찰조사는 표본조사로서 통계청 지방사무소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진행하고 있다.

Grip(2000: 12~14)이 잘 정리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방법은 직업사전(the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등 전문적인 직무분석가에 의해 수집된 직업별 정보를 활용해 불일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주관적인 방법은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을 던져 본인의 판단(self report)에 따라 불일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객관적인 방법은 전문적인 직무분석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명료한 정의와 세부적인 측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이 변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주관적인 방법은 자신이 실제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서 본인이 누구보다 정확할 수 있고 객관적인 방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요건에 관해 응답자들이 항상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방법이 객관적인 방법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주로 자료의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KLIPS는 2차년도 조사(1999년)부터 직무불일치에 관한 주관적인 척도²⁾를 제공하고 있는데 업무내용과 전공간의 일치 여부에 관한 정보는 3차년도 조사(2000년) 중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 자료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KLIPS의 7차년도(2004년) 자료로는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 전공불일치 여부를 측정하고자 한다.

전공불일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은 Wolbers(2003)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다. Wolbers는 유럽연합의 2000년 LFS(the original Labour Force Surveys) 자료를 이용해 유럽의 13개국을 대상으로 전공불일치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해 전공불일치 여부를 측정하였다. 각 전공분야별 직업연계표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의 소분류(3-digit) 수준에서 각 직업별로 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한 해당 전공분야의 연계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전공분야의 분류는 UNESCO의 전공분류(ISCED)에 기초한 것으로 8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① 교육계열(Education), ② 인문/예술계열(Humanities/arts), ③ 사회과학/비즈니스/법계열(Social sciences/business/law), ④ 자연과학계열(Science), ⑤ 공학/제조/건설계열(Engineering/manufacturing/construction), ⑥ 농업계열(Agriculture), ⑦ 의료/사회복지계열(Health/welfare), ⑧ 서비스계열(Services) 등이다.

2) KLIPS에서 질문내용은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되어 있으며 ① 수준이 매우 낮다 ~ ⑤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KLIPS에서 제공되고 있는 응답자들의 전공분야에 관한 정보는 1차년도(1998년) 자료의 개인별 학과명과 4차년도(2001년) 자료의 개인별 전공계열 등 두 가지인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자료가 7차년도(2004년)에 수행된 것으로 매년 신규조사자가 추가된 상태에서 1차년도 개인자료와 2~3차년도 신규조사자 자료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응답자별 학과명 정보 대신 4차년도 개인자료 및 5~6차년도 신규조사자 자료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응답자별 전공계열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 때 Wolbers의 전공분야별 직업연계표 중 고등교육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⑧ 서비스계열 전공분야를 제외하였고 세분화된 ⑤와 ⑥은 공학계열로 통합하여 한 분야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⑦ 의료/사회복지계열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계열이 의료계열보다는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계열과 관련된 분야의 연계직업표는 사회과학계열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분석에서 사용된 전공분야 분류는 ① 교육계열, ② 인문/예체능계열, ③ 사회과학계열, ④ 자연과학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료계열 등이다³⁾.

III. 대학(원)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 실태

<표 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전공불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LIPS의 7차년도(200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도는 58.1%로 나타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30.4%)나 경찰 부가조사(전문대 49.2%, 대학교 40.5%)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것은 우선 측정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들은 전공일치 혹은 불일치에 관한 측정방법으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한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결과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전공불일치도를 측정하고 있다. Witte and Kalleberg(1995)는 두 가지 측정방법에 따른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방법이 주관적인 방법에 비해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직무불일치 중 과잉교육 여부와 관련 두 방법을 비교한 Tsang et al(1991)은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보다 30%포인트나 높게 추정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기현(2003)은 KLIPS 5차년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과잉교육 여부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이 주관적인 방법에 비해 1.46배 높게 추정되

3) KLIPS에서 제공되는 응답자별 전공계열은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의약계열, ⑥ 사범계열, ⑦ 음악계열, ⑧ 미술계열, ⑨ 체육계열, 그리고 ⑩ 기타 등인데, ⑦~⑨는 인문계열과 통합하였고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측면은 앞선 조사들이 최근 졸업한 대졸자 혹은 30세 미만의 대졸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서 이 조사결과는 모든 대(학원)졸 연령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공불일치 여부를 추정할 때 과잉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하의 논의는 주로 인구학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별 비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전공불일치 실태

(단위: %, 명)

	전 체	전공일치	전공불일치	전 체
	전 체	41.9 (714)	58.1 (991)	100.0 (1,705)
성별	남 성	43.2 (482)	56.8 (634)	100.0 (1,116)
	여 성	39.4 (232)	60.6 (357)	100.0 (589)
연령별	15~29세	39.0 (217)	61.0 (339)	100.0 (556)
	30~39세	39.4 (256)	60.6 (394)	100.0 (650)
	40세 이상	48.3 (241)	51.7 (258)	100.0 (499)
학교유형별	전문대학 졸	37.1 (200)	62.9 (339)	100.0 (539)
	대학교 졸	42.0 (419)	58.0 (579)	100.0 (998)
	대학원 졸	56.5 (95)	43.5 (73)	100.0 (168)

주: 2004년 당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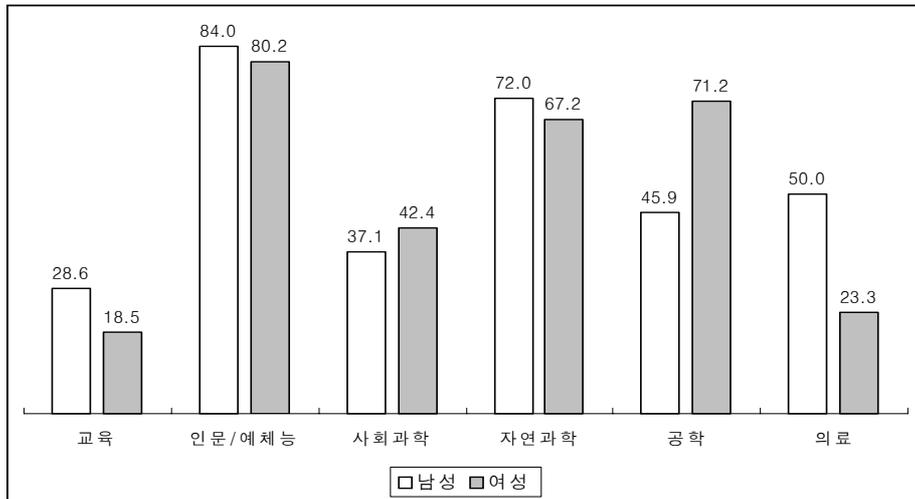
먼저 전공불일치 여부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56.8%)보다는 여성(60.6%)의 그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지고 있다(Wolbers, 2003).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취업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성별로 분절화된 직업구조 속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이 남성 지배적인 직업에 비해 훨씬 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젊은층(61.0%)이 중고령층(51.7%)에 비해서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과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첫번째는 대(학원)졸업자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KLIPS의 7차년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30세 미만 연령층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55.0%인데 비해 40세 이상 연령층의 그것은 15.7%에 불과하다.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고 볼 때 젊은층이 중고령층에 비해 대졸 노동시장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층이 중고령층에 비해서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할 여지가 높을 가능성이 짙다. 두번째로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경기회복 이후에도 젊은층의 취업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자리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층의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전공불일치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곧 전문대졸자의 62.9%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58.0%, 대학원 졸업자는 43.5%가 전공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 용이하고 전공 심화에 따른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공분야가 보다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와 연계되는 일자리의 수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으나 반대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상향화(upgrading)되고 있는 현상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성별 전공불일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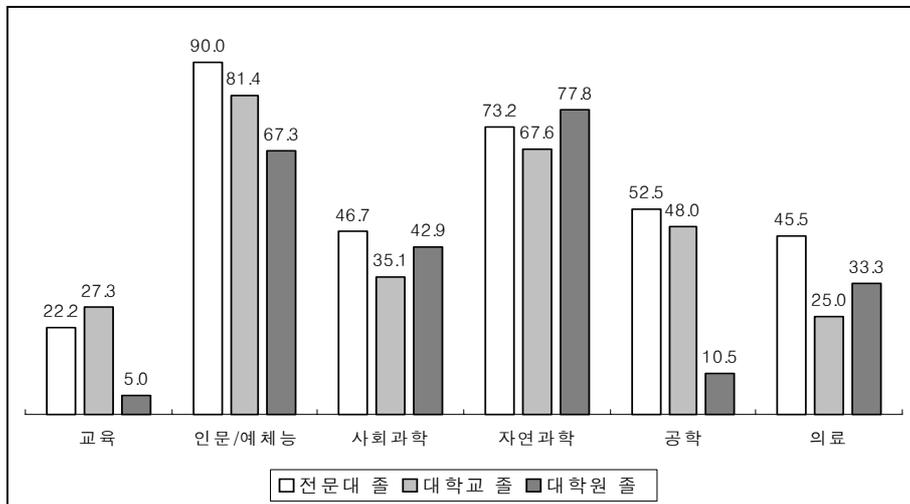


[그림 1]은 성별로 각 전공분야에 따른 전공불일치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남녀구분과 상관없이 대(학원)졸 취업자들 중 교육계열 전공자들은 전공불일치도가 가장 낮으며 인문/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과학계열 전공자들의 전공불일치도는 비교적 낮고 자연과학계열 전공자들은 남녀 공히 높다. 성별로 볼 때 두드러진 차이는 공학계열과 교육 및 의료계열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학계열의 경우 대(학원)졸 여성의 전공불일치도(71.2%)는 대(학원)졸 남성(45.9%)보다 25.3%포인트나 높다. 반면, 교육 및 의료계열 전공자들 중 대(학원)졸 남성의 전공불일치도는 대(학원)졸 여성보다 각각 10.1%포인트, 26.7%포인트나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전공분리 현상과 함께 성별 노동시장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공학계열을 선택하고 여성은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발견(Bladley, 2000; Ramirez and Wotipka, 2001)되고 있는데 이같은 성별 차이(gender differentiation)는 졸업후 전공을 살려 일자리에 취업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그림 1]의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교육 및 의료계열은 인문계열 못지않게 여성 지배적인 (female-dominated) 전공분야로서 이를 전공했을 때 여성의 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이 남성 지배적인 전공분야인 공학계열을 전공했을 때의 불이익 역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전공분리 현상과 전공불일치의 차이는 성별로 분절화된 직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먼저 교육시장에서 성비 불균형 현상은 잘 알려져 있는데, 초등교사의 80%, 중등교사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는 여성 직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및 보건 관련 노동시장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체 의료 및 보건인력 중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약사 등 대부분의 의료 관련 직업들의 종사자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성별 직업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공에 대한 선택은 해당 분야의 취업에 성별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 혹은 여성 지배적인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 전공불일치 여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학교 유형별로 전공분야에 따른 전공불일치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공불일치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세부 전공분야별로 볼 때 그 경향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교육 및 공학계열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들

[그림 2] 학교 유형별 전공불일치 비교



의 전공불일치도(교육:공학=5.0:10.5)는 전문대나 대학교보다 매우 낮다. 이것은 전공불일치 여부만을 놓고 볼 때 교육 및 공학계열이 전공심화에 따른 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문/예체능계열은 전공불일치도 그 자체는 매우 높지만 교육 및 공학계열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도가 가장 낮다. 반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의료계열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보다는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불일치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IV. 대학(원)졸 임금노동자의 전공불일치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

이 장에서는 대(학원)졸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전공불일치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공불일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있어 전공불일치는 상용직 혹은 정규직 종사 여부, 임금, 직무만족도 등 노동시장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itte and Kalleberg, 1995; Allen and van der Velden, 2001; Wolbers, 2003). 곧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일수록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이 낮으며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이직의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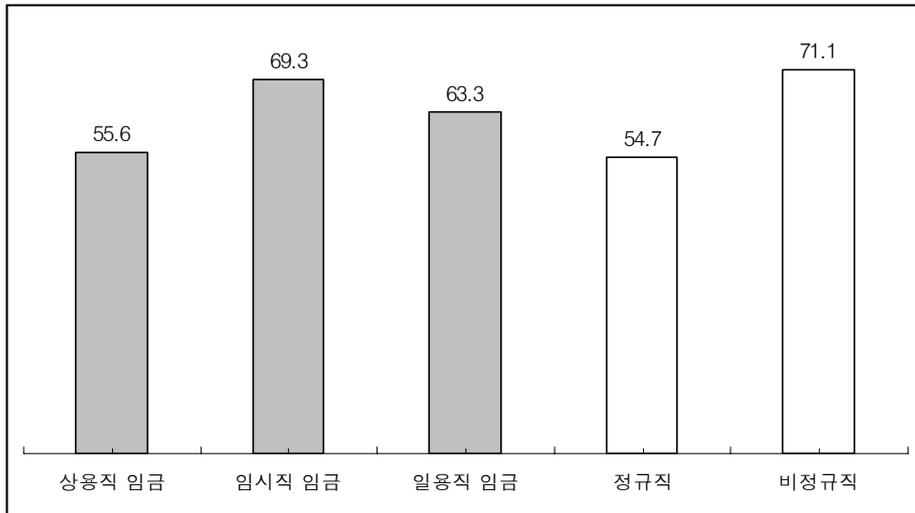
먼저 [그림 3]은 종사상 지위 및 정규직 여부에 따른 전공불일치도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임금노동자 중 종사하는 일자리가 상용직(55.6%)일 때 임시직(69.3%)이나 일용직(63.3%)보다 전공불일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볼 때도 정규직인 경우(54.7%)가 비정규직인 경우(71.1%)보다 낮은 전공불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의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노동시장 특성별로 전공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전공불일치 여부에 따른 세전 총연간 근로소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KLIPS 7차년도(2004년) 조사는 2003년 한해 동안 연간 총 근로소득을 세전과 세후로 구분해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전 총연간 근로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규직의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2939.7만원)이 그렇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2497.6만원)에 비해 연간 442.1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전공불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137.2만원)는 크지 않으며 전공불일치인 경우가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인데,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정규직에 비해 덜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전공불일치 여부가 임금차이를 가져오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낮기 때문에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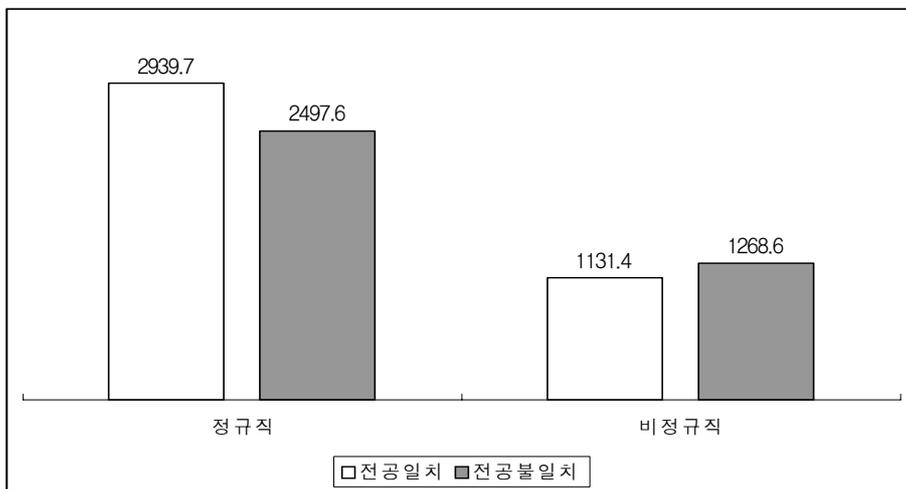
[그림 5]는 전공불일치가 일에 대한 지향(orientation to work)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만족도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정규/비정규 구분과 상관없이 전공과 무관한 일 자리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임금노동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직무만족

[그림 3] 종사자 지위 및 정규/비정규직별 전공불일치 비교



[그림 4] 전공불일치 여부에 따른 세전 총연간 소득비교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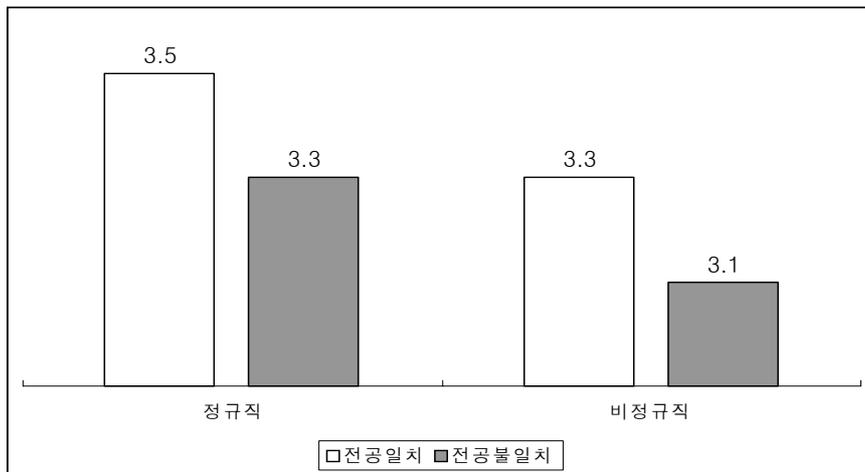


도는 3.5점인데 비해 전공불일치인 경우 3.3점이며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도 전공불일치의 임금노동자(3.1점)가 전공일치의 임금노동자(3.3점)에 비해 0.2점 가량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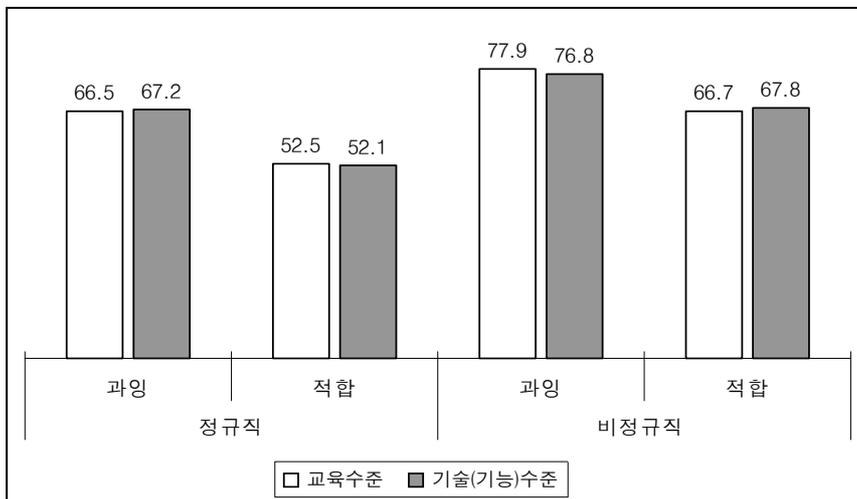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6]은 직무불일치를 측정하는 다른 지표인 교육 및 기술(기능) 과잉 여부와 전공불일치 여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및 기술(기능) 과잉 여부는 본인의 교육 혹은 기술(기능)수준보다 직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낮은 경우를 과잉(over)

[그림 5] 전공불일치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비교

(단위 : 점)



[그림 6] 교육 및 기술(기능) 과잉 여부에 따른 전공불일치 비교



으로, 직무의 요구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적합(fit)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오히려 높은 경우를 과소(under)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교육 과잉은 달리 ‘학력 과잉’ 혹은 ‘하향취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KLIPS의 경우 과소라고 응답한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잉과 적합만을 다루어 전공불일치 여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간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자신의 교육이나 기술(기능)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한 하향취업자의 경우 자신의 수준에 맞게 취업한 경우보다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비정규직으로 하향취업자인 경우 전공불일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KLIPS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대(학원)졸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보다는 전문대졸자인 경우 전공불일치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임시·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일 때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인 경우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 및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임금과 같은 경제적인 보상은 물론 직무만족과 같은 심리적인 보상에 있어서도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KLIPS**

<참고문헌>

- 강성국·김창환·김한준·김중진·홍지영·박재민·권경희·이기준(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2003), 「하향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KLIPS Research Brief』, 3, 1~12쪽.
-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2호, 1~29쪽.
- 박천수(2004), 「청소년의 과잉학력 현상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199~225쪽.
- 吉本圭一·小杉礼子·小方直幸·秋永雄一·本田由紀·米澤彰純(2001), 『日欧の大学と職業 - 高等教育と職業に関する12ヵ国比較調査結果』, 調査研究報告書 No.143,

日本労働研究機構.

- Allen, J. & Velden, R. van der(2001), "Educational Mismatches Versus Skill Mismatches: Effects on Wages, Job Satisfaction, and on-the-Job Search", *Oxford Economic Papers*, Vol.53, pp.434~452.
- Borghans, L. & Grip, A. de(2000), *The Overeducated Worker? The Economics of Underutilization of Skills*, Cheltenham: Edward Elgar.
- Bradley, K.(2000), "The Incorporation of Women into Higher Education: Paradoxical Outcomes?", *Sociology of Education*, Vol.73, No.1, pp.1~18.
- Ramirez, F. O., & Wootipka, C. M.(2001), "Slowly but Surely? The Global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of Study, 1972~92", *Sociology of Education*, Vol.74, No.3, pp.231~251.
- Witte, J., & Kalleberg, A.(1995), "Matching Training and Jobs: The Fit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in the German Labour Marke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11, pp.293~317.
- Wolbers, M. H. J.(2003), "Job Mismatches and Their Labour-Market Effects among School-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19, No.3, pp.249~266.